

# 강진군, '스마트 빌리지 사업' 구축 완료



강진군이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0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완료하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구축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스마트 빌리지 사업'은 지능정보기술을 농어촌과 접목해 농업 생산성 향상·안전 강화·생활편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국비 18억 5천만 원 등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의 창출과 주민 편의를 위해 강진읍 일대에 5

개 사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사업으로 '농장맞춤형 생산성 향상 서비스'사업은 시설원에 50개소, 노지 10개소에 수집장비를 설치하여 시스템이 기상과 환경, 병해충 데이터 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전남농업기술원으로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분석하여 농작물 방제정보 및 조치할 사항을 농가의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 국비 18억 5천만원 등 총 24억원 사업비 투입 강진읍 일대 농촌과 ICT(지능정보기술) 접목

다.

'생활폐기물 제로화 및 에너지화 서비스'는 시범적으로 16개 마을에 ICT(지능정보기술)센서가 장착된 폐기물수거함을 설치해 일정량의 폐기물이 수집되면 서비스센터로 자료가 전송된다. 이후 수거를 통해 폐기물을 열분해 처리하여 정제유를 생산한 후 자원화시켜 수의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지능형 영상 보안관 서비스' 사업은 가로등과 CCTV가 일체형으로 장착된 시스템을 관내 범죄 취약지역 등 20개소에 설치, 위급상황과 특정 행동인식을 분석하여 서비스센터로 전송,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ICT(지능정보기술)센서 활용 환경 오염 실시간 측정 및 조동 대응 서비스'는 관내 지역에 4개소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발생정보를 실시간 감지하여 '마스크착용, '외출자제' 등 대응상

황을 주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전송되며, 인체에 무해한 항바이러스 약품을 초미세 분사하여 지역의 공기 흐름에 따라 항바이러스제가 골고루 확산되어 지역을 바이러스 청정지역으로 조성한다.

'사이버 청자 도예 공방 서비스'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강진에 방문하지 않고도 AR(증강현실) 시스템을 이용해 '나만의 청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공방에 제작을 의뢰해 택배로 배송을 받게 되는 윈스톱 쇼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ICT(지능정보기술) 시스템을 이용한 과학농업을 실시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강진군이 전국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신축년 새 기운 머금은 주홍빛 보물 '향그레 레드향' 수확

장흥군은 지난 11일 신축년의 새로운 기운을 머금고 향기롭게 결실을 맺은 레드향을 수확했다고 전했다.

원래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만감류 레드향은 6년 전 장흥에 도입되어 높은 수확량 및 판매율을 자랑하고 있다. 레드향은 토마토 등 다른 작목과 비교해 수확할 때 손이 덜 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장흥 지역은 제주도와 비교해서 일조량이 많고, 봄이 되면 해풍이 많이 불어와 레드향의 당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존 시설 원에 작목의 경쟁력이 낮아져 새로운 작목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흥군은 레드향을 기후 변화 대체 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현재 장흥군 22농가에서 9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주 수확기는 12월~2월로, 온주 밀감에 비해 특유의 맛과 향기가 있고 저장 기간이 길어 인기가 높다.

장흥 레드향 향그레의 당도는 평균 15브릭스로 다른 만감류와 비교하여 단맛이 강한 것은 물론,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풍부한 단맛과 과즙을 자랑하는 레드향은 이제 장흥에 없어서는 안 될 인기 작물로 부상했다"며 "앞으로도 레드향처럼 장흥의 기후에 알맞은 아열대 과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통해 장흥의 원예작물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 읍넛골 산촌유학 센터 국비 공모사업 선정

전남 강진 읍넛골 산촌유학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1 농촌유학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국 최초의 농촌유학 모델인 강진 읍넛골 산촌유학센터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놓였던 읍넛초등학교를 교사 및 마을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농촌유학사업의 활성화를 설립했다. 그 결과 현재 학생수가 48명으로 늘어나 지역학교 및 농촌 활성화에 성공한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에서는 등교수업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청정지역인 강진 읍넛골 산촌유학센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덕분에 학생 전원이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국비를 확보 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항 배후지 개발, 복합해양단지' 올해 완공 추진

### 연안여객선터미널 등 5개 사업 준공·분양 추진



진도항 배후지 복합해양단지를 올해 하반기 준공해 서남해안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한다.

주요사업은 ▲국민해양안전관 270억원 ▲복합항만배후단지 443억원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설 809억원 ▲진도항 2단계 건설사업 430억원 등 총 1,952억원이다.

세부 사업의 공정율은 국 민 해 양 안 전 관 35%, 복합항만 배 후 단 지 80%, 진도 연안여객선터미널 신설 착공, 진도항 2단계 건설 사업 9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 5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한 내용과 관련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진도군 진도항개발과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석탄재를 진도항 배후 부지에 반입하기 위해 위법

행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건이 2020년 12월말경 광주지방법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매립 공사에 쓸 석탄재를 당초 토사에서 석탄재 혼합공법으로 변경해 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했다.

진도항 개발은 지난 2014년 국·도·군비 등 총 사업비 433억원 규모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 후 진도항과 서방항에 52만1,834㎡ 규모의 배후 단지를 조성해 상업시설, 수산물 가공·신재생에너지·복합해양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진도군은 진도항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과 수산·물류·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행정력을 집중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조성용기자

## 해남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관리 '총력'

최근 가금농가 50개소와 철새도래지 60개소 등 전국 110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해남군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남군은 가금농장 33개소에 대해 전화예찰과 방역실천 여부 현장점검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오리농장 및 닭계류장 7개소에 통제소를 설치, 축산차량·택배차량 등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오리 2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 휴지기제를 시행하여 사육을 중지하고 있다.

전 가금농장 33개소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전담관 33명을 지정하고 매일 전화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구 생석회 도포, 축사 안 소독, 쥐·철새 유입 가능한 축사내부 훼손 여부, CCTV설치 등 방역시설 정상작동과 사육가축 질병감염 및 소독실시 여부이다.

특히 오리 5농가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1대 및 드론 2대를 동원해 매일 2회 농장 및 주변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닭 27농가는 축협 공동방제단 5개단을 활용 매일 1회 농장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